

말씀의 샘

참된 안식이 있는 곳 <마가복음 6장 30~33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식을 하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동안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전에 제자들을 돌씩 전도여행을 보내십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일하고 난 뒤의 휴식은 필요합니다. 또 왜 안식이 필요할까요?

이제 겨우 마가복음 6장입니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 많고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6장까지 달려갈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안식하는 것도 주님의 사역에 속합니다. 안식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계속적인 영적 사역을 위해서 전략적 쉼과 충전은 꼭 필요한 것이고 잘 충전해야 다음을 위해 잘 도약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40년간 폭 쉼 다음에 새 사명을 받았고, 엘리야도 로렘나무 아래에서 잠시 안식한 다음 호렘산에서 새로운 비전을 받습니다.

안식이 필요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짜증이 나고,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면 안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무뎠던 감성,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진지 오래고 예배와 기도 에 힘을 잃어버리고 형식과 의무가 된지 오래라면 안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더디고 자꾸만 신앙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다면 안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의욕이 상실되어 아무 것도 할 힘이 생기지 않는다면 참된 안식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이 시대는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입니다. 회복되고 침체되는 사이클이 점점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대원칙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마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음의 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시간과 돈이 있어서 어딜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쉬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의 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주님 안에서 마음의 쉼, 주님과 함께하는 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잠시 쉴 수 있는 한적한 곳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막 6:30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날날이 고하니 **31**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첫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적한 곳은 나를 내려놓고 말기는 곳입니다.

모세의 쉼은 열정과 욕심을 내려 놓는 쉼이었습니다. 광야의 무료함과 여유를 40년간 가졌습니다. 40년의 광야 시간은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야망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배웠던 수사학, 웅변술, 경영학, 정치 외교학, 자연 과학(천문학), 철학과 종교, 무술, 예술등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형 인간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40년간 다 잃어버렸고 나이가 팔순에 빈털터리 모세에게 오셔서 그나마 신고 있던 신발마저, 또 갖고 있던 지팡이마저 던져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합니다.

여러분 결과를 내려놓는 쉼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결과가 쫓기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결과를 걱정하며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우리의 성패는 아직 모릅니다. 인생의 결과를 단정짓지 마십시오. 주님께 결과를 맡기고 안식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힘쓰고 애쓰다고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님을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은 생각지 않게 잘 되는 것도 많음을 보지 않습니까? 예배시간까지 아껴가면서 하나라도 더 볼려고 공부하고, 주일 예배와 주일 성수를 포기하고 신앙을 뒷전으로 모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결과가 눈에 띄게 좋아지던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시편 107:30**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내려놓는 것이 안되는 분들도 잠시 내려놓고, 주님과 안에서 안식하는 것부터 연습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한적한 곳은, 과거 상처와 실패를 잊어버리는 곳입니다.

엘리야의 로렘나무 아래에서 쉼은 상실감과 실패감을 잊어버리게 하는 쉼이었습니다. 불들과 있으면 다음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요셉은 중, 죄수로 있을 때는 쉼이 없었지만,

총리가 되어 영육 간에 여유와 쉼을 가지면서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낏세”라고 지었습니다. ‘잊어버리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있었던 일, 형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고 종으로 팔아버린 악행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데 굉장한 가속도를 얻게 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아픈 기억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며 또 대상을 용서하지 못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괴로움으로 인해 여러분의 쉼을 빼앗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평안을 깨뜨리는 어떤 것이든 “므낏세”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고, 그 평강과 함께 주님의 음성이 더욱 분명하게 들리면서 회복의 문을 활짝 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한적한 곳은,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며 나를 돌아보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사도바울은 다메섹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 약 10년간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서 쉼을 갖습니다. 이 시간은 바울이 자기의 생각과 율법 주의적인 가르침들을 복음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가르침을 재해석하여 복음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리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거의 신약성경 반이나 기록하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을까요?

마 7: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에게 무엇이 잘못이었을까요? 열심히 일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자기를 돌아볼 기회를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잘하고 있는 일인지 정리하고 돌아보는 안식이 꼭 필요합니다.

계 2: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계시록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일했고, 행사도 많았고 게으르지 않았고 분별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 버렸다고 하십니다. 열심히 중요하지만 점점도 중요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안식이 참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도 중요하지만 잠깐 멈춰서서 방향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할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내 영이 쉬는 곳입니다. 피곤하고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영혼이 충전을 받는 한적한 곳으로 교회 공동체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명하신 한적한 곳에서 내 생각과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상처와 실패를 십자가 밑에 내려 놓고 주님의 눈으로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이 진정한 쉼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2015. 11. 1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2015. 11. 8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누가복음 7장 11~1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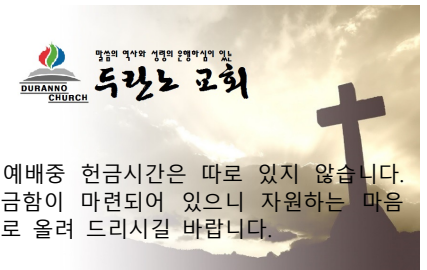
특 송 ----- 이 기훈, 김 쉐리 성도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주님은 능히 위로하십니다”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7:30

* 예배중 헌금시간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헌금함이 마련되어 있으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려 드리시길 바랍니다.